"몸상태 자신, 풀타임 지명타자는 아직"

추신수, 새 시즌 지명타자 출전 관련… 스프링캠프 기간 훈련성과 따라 결정될 듯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몸상태는 자신있다'며 아직은 풀타임 지명타자로 뛸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 20일(한국시간) 텍사스 알링턴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미니캠프에 참가한 추신수와 내야수 엘비스 앤드루스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추신수는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몸상태에 관한 것이다. 나는 그런 질문에 지쳤다. 지난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몸상태는 좋다. 스프링캠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신수는 부상 악령에 시달렸다. 종아리와 햄스트링, 허리 등 각종 부위에 통증을 느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심지어 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 왼 팔뚝뼈 골절 부상으로 한달 보름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4차례나 부상자 명단에 오르내렸던 추신수는 48경기 출전에 그치며 성적도 타율 0.242 7홈런 17타점 43득점에 머물렀다.

건강했던 2015년 149경기에 나서 타율 0.276 22홈런 82타점 94득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혀 몸값 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구단도 추신수의 몸상태를 예의주시하며 관리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추신수는 오는 3월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만 존 다니엘스 단장은 사실상 참가를 불허한 상태다.

건강에 대한 우려로 추신수가 새 시즌 얼마나 자주 지명타자로 출전하게 될지 여부도 곧 있을 스프링캠프 기간 훈련성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신수는 "팀이 나를 어느 곳에 필요하든지 간에 나는 기꺼이 팀을 위해 도울 것"이라면서도 "나는 아직 풀타임 지명타자로 뛰기엔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MLB.com'은 추신수의 지명타자 전향은 1월 중 결정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텍사스는 여전히 선수 구상을 마무리 하지 않았다.

마이크 나폴리나 또 다른 1루수 겸 지명타자 영입 가능성이 남아 있다.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조쉬 해밀턴도 1루수 혹은 지명타자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신수의 지명타자 전환에 영향을 줄 선수로 딜라이노 드쉴즈를 거론했다.

드쉴즈는 지난해 주전 중견수로 출전했지만 현재는 카를로스 고메즈, 노마 마자라, 추신수 등이 외야진에 포진해 있다.

드쉴즈가 외야 라인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 고메즈는 우익수로 이동하고 추신수가 지명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MLB.com'은 제프 배니스터 감독이 많은 선수들을 지명타자 자리에 돌아가며 서게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신수는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지난해 추신수는 부상 악령에 시달렸다. 종아리와 햄스트링, 허리 등 각종 부위에 통증을 느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KIA, 2017 시즌 탁상용 캘린더 판매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2017년 탁상용 경기일정 캘린더를 23일부터 예약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탁상용 캘린더는 2017시즌 경기 일정이 담겨 있으며 역대 우승 엠블럼과 기념 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캘린더는 개당 1만원, 배송비는 별도다. 주문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2월2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고척돔 그라운드, MLB급 상태로 정비

오는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의 그라운드가 메이저리그(MLB)급으로 바뀐다.

KBO와 WBC 조직위원회인 WBCI는 오는 3월6일 개막하는 2017 WBC 서울라운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닷새간 고척 스카이돔 그라운드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WBC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부상 없이 안전하게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상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다.

WBCI는 지난해 12월14일 고척돔을 방문해 경기장 및 그라운드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 뒤 개선사항 등을 정리했다.

그라운드 정비는 메이저리그 구장 유지 관리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MLB 자문위원인 머레이 쿡이 주도한다.

머레이 쿡을 비롯해 WBCI 스태프와 서울시설관리공단, 넥센 히어로즈 그라운드 관리 담당자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에는 마운드 개선과 내야 평탄화 작업, 불펜 보수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KBO는 24일 국내 구단 구장관리 담당 직원들을 고척스카이돔 초청, 머레이 쿡의 그라운드 정비 작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美 피겨협회장, "러시아,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해야"

"국가가 개입 조직적으로 도핑 이뤄져 상위 단체 강력한 제재 필요" 촉구

미국 피겨스케이팅협회 샘 옥시에 회장이 러시아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전미피겨선수권대회에 참석한 옥시에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대규모 도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옥시에 회장은 "러시아의 도핑에 국가가 개입했다. 조직적으로 도핑이 이뤄졌고, 중대한 사건"이라며 "러시아는 이에 합당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위 단체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강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ISU가 도핑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한다. 그래야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며 "ISU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법학 교수 리처드 맥라렌이 이끄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독립위원회는 소치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러시아 선수 12명의 도핑 샘플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WADA 독립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00여명이 넘는 러시아 선수들이 샘플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도핑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19개국 반도핑기구 수장들은 러시아를 모든 국제대회에서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맥라렌 보고서' 발표 이후 IOC는 소치올림픽에 출전한 28명의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IOC는 조사와 징계에 들어간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피겨여왕' 김연아(27)를 제치고 우승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1·러시아)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만약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박탈당하면 김연아가 금메달리스트가 된다. 그러면 김연아는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스켈레톤 문라영, 북아메리카컵 7차 대회 은메달

한국 여자 스켈레톤의 문라영(21·삼육대)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북아메리카컵에서 은메달을 땄다.

문라영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2016~2017 IBSF 북아메리카컵 여자 스켈레톤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1분53초96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금메달은 1·2차 레이스 합계 1분53초92를 기록한 도나 크레이톤(영국)의 차지가 됐다.

올 시즌 북아메리카컵 1차 대회에서 한국 여자 스켈레톤 최초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일군 문라영은 7차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1차 레이스에서 56초58을 기록하며 1위에 오른 문라영은 금메달까지 노렸지만, 2차 레이스에서 57초38로 4위에 그치면서 종합 순위가 밀렸다.

함께 출전한 정소피아(24·용인대)는 1분55초20을 기록해 8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혁(20)은 1분56초18로 12위에 자리했다.

/김민근 기자